

축산물품질평가원 홍보대사가 되다

유난히 추웠던, 계속 될 것만 같았던 겨울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봄기운으로 가득한 화창했던 4월의 지난 주말 4월 2~4일까지 양평 개군레포츠 공원에서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하는 양평 산수유·개군 한우 축제 행사가 있었다.

경기지원에서는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직원들이 번갈아가며 3일간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과 축산물등급제도에 대한 홍보와 설명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가족들끼리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봄기운 가득한 황금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홍보행사에 적극 참여한 덕분에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평소 다양한 홍보행사를 통해 고품질 우리 축산물 알리기에 앞장 서 왔지만, 이날 자리는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조직 명칭이 바뀐 이후 공식적인 첫 홍보 행사이기도 했기에 그 중요성은 더했다고 할 수 있다.

직원 모두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홍보대사라는 생각으로 고객 분들에게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욱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내가 참여했던 날은 4월 4일 행사의 마지막 날로 우려와는 달리 날씨도 좋았다.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 주최 측의 노력으로 행사장에 몰려든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 행사장의 열기는 후끈 달아올라 있었다. 행사장에 마련된 식육판매 부스에서도 등급을 확인하고 고기를 구입하는 고객들이 많은 정도로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홍보부스를 방문한 고객 분들은 믿고 찾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과 특히 쇠고기 이력 조회방법 시연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소·돼지의 등심모형, 닭고기·계란 등급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다.

특히 닭고기나 계란 등급제도는 소·돼지에 비해 생소하게 느끼는 탓인지 홍보대사들의 설명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신선한 닭고기와 계란을 고르는 요령들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해왔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서 등급제도 및 좋은 축산물을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고 등급제 홍보민화를 챙겨 가시는 어머님들을 대할 때면 우리 축산물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다.

고품질 축산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반영이라도 하듯 등급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한편, 아직 닭고기나 계란에는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고객 분들이 많아서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숙제를 받아 돌아 온 자리이기도 했다.

홍보책자를 전달해 드리고 성심을 다해 안내를 해드리면서 우리 축산물의 품질을 책임지고 있는 품질평가사의 입장에서 고객 분들이 품질 좋은 축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전 직원들이 고객이 "YES"라고 할 때까지 고객만족에 더욱 매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고객들이 보내주시는 성원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모든 직원들은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모든 고객 분들이 등급 제도를 알아 줄 그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해본다.